

으로도 필요하다.

5. 육기의 성질과 작용

風은 動하는 성질이 있어 運動작용을 하며, 火는 溫하는 성질이 있어 熱작용을 한다. 寒은 堅하는 성질이 있어 凝結작용을 하며, 暑는 蒸하는 성질이 있어 熱작용을 한다. 燥는 乾하는 성질이 있어 收縮작용을 하며, 濕은 潤하는 성질이 있어 生化작용을 한다.⁷⁾ 熱과 暑의 熱작용을 구분할 때 暑가 主動的이라면 熱을 標化的으로 작용한다고 본다.⁸⁾

① 風

기후의 寒暑의 편차로 발생하여 皮膚 經絡으로 침투하는 外風과 인체에서 寒熱의 편차로 内生하여 肝의 本氣에 영향하는 內風으로 구분하는데 발견되는 주요 病症으로 外風은 振寒, 汗出, 頭痛, 身重, 惡寒 등⁹⁾과 內風은 掉眩¹⁰⁾이 나타난다.

기운이 교차하는 때에 水火가 합하여 風을 생하며, 風은 先寒 後熱하는 병증 발현의 특징을 갖고 肝經脈에 熱結이 되면 內외의 風이 相應한다. 先寒은 太陽症이고, 後熱은 陽明症이며, 사한사열(乍寒乍熱)은 少陽症으로 나타나는데 寒熱의 相搏으로 六腑[消化器]에 발병되어 挾食傷脾하게 된다. 風邪는 末疾로 手足에 麻痺로 잘 나타나며 流動할 때 先入血하고 次入筋하여 病症이 출현한다.

風은 流動의 성질이 있으나 乘氣하는 정도에 따라 병증이 다르다. 緩症은 發熱 頭痛 泄瀉, 輕症은 肉瞤(肉瞤) 麻痺, 重症은 氣急 嘔逆, 急症은 角弓反張 등으로 구별된다.

風은 動靜에 따라 그 변화가 다른데 動하면 生熱하여 人體의 上部로 진입하여 三焦에 전하면 上下體가 모두 熱하게 되는데 이를 ‘風熱’이라고 한다. 靜하면 生寒하여 風寒은 人體의 下部로 진입하여 大腸에 積하면 ‘聚’라고 한다.

② 寒

寒이 陰邪로 작용하여 肌膚로 침범하는 것을 ‘傷寒’이라 하고, 寒邪가 裏로 直中하

7) 黃帝內經·素問·五運行大論篇 67, 앞의 책, p. 237.

8) 尹吉榮, 東醫學方法論研究, 成輔社, 1983, p. 79.

9) 黃帝內經·素問·骨空論·60, 앞의 책, “風從外入 令人振寒 汗出頭痛 身重惡寒”.

10)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74, 앞의 책, “諸風掉眩 皆屬於肝”.

여 臟腑를 손상시키는 경우를 ‘中寒’이라고 한다. 先天의으로 不足하거나 後天의으로 生冷 飮食物의 섭취 혹은 寒涼약물 過用 등으로 陽氣가 不足하게 되면 ‘內寒’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陽虛內寒의 경우에는 쉽게 外寒이 침투하게 된다. 이때는 體溫을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모습이 파리하고, 따듯한 것을 좋아하고, 四肢는 싸늘하고, 맑은 수액을 吐하고, 消化되지 않은 泄瀉와 맑은 小便을 보며, 몸이 무겁고 눕기를 즐긴다.

寒의 侵入으로 表에서 衛氣의 鬱結로 經氣가 停滯되면 惡寒, 發熱, 無汗, 頭項强痛 등을 야기하고, 關節에 머물러 筋骨에 痛症이 나타나고,¹¹⁾ 血에 과급되어 血이 凝滯되고,¹²⁾ 水液대사에 영향 津液이 정체하여 痰飲生成, 咳嗽氣喘, 關節刺痛, 局所麻木 등 병증과 三焦의 氣化작용이 부진하게 된다.

③ 暑

夏月에 元氣가 훼손되거나 陰分이 부족할 때 暑熱의 邪가 침입하면 暑病이라고 한다.¹³⁾ 熱邪는 人身의 上部로 感受하여 항상 직접 陽明으로 침입하여 先入 脾胃에 먼저 들어간다. 暑邪는 쉽게 津液을 손상하고 氣를 소모하게 한다.

暑熱의 침투 經路는 먼저 氣分에 들어온 후 營血로 傳入되고, 心包로 侵入하면 高熱 神昏 肢冷의 증상이 출현하는데 이를 暑厥證이라고 한다. 만일 肝風을 자극하여 發熱 項强 주요(抽搖)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暑風證이라고 하며, 肺絡을 손상하여 血이 妄行하여 咯血이 출현하면 이를 暑瘀證이라고 한다. 發病 後期에 이르면 眞陰 枯渴로 肝腎陰이 損傷되어 虛風이 內動하게 된다.

④ 濕

濕은 잘 流動하지 않고,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고, 잘 凝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다른 六氣에 의하여 風濕, 濕熱, 寒濕, 濕痰 등으로 變形된다. 濕은 上에 있으나 아주 높게 있지 않고, 下에 있으나 陷하지도 않고 四方에 가로퍼지게 되는데 가운데 充滿하여 人身의 五臟에 들어간다. 다른 六氣는 侵入에 있어 六腑에 그치나 濕은 五臟에 쉽게 들어간다. 그 이유는 胃가 陽明燥이고 脾가 太陰濕으로 脾土로부터 他臟에

11) 黃帝內經·素問·舉痛論 39, 앞의 책,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外則血少 客於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 “痛者 寒氣多也”.

12) 黃帝內經·素問·五臟生成篇 10, 앞의 책, “血凝於膚者爲痺”.

13) 黃帝內經·素問·熱論篇 31, 앞의 책,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 暑當與汗皆出 勿止”.

濕이 橫布하기 때문이다.

濕의 性이 寒熱에 따라 변하는바 寒하면 초기에는 水를 만들고 나중에는 凝結하여 積聚가 되며, 熱하면 氣化하여 초기에는 火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燥가 된다.

濕이 邪氣가 되어 侵入하는 경우 음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고 居處나 動作으로 인한 때가 많다. 특히 ‘濕勝火衰’의 시기(辰戌丑未의 四季之月과 六月長夏)에 많이 발생하는데 先入 手少陽三焦經으로 침투한다. 주로 寒濕은 太陰經을 따라서 들어가나 濕이 陽明經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면 四時를 가리지 않고 병이 된다. 평상시 濕邪는 主燥하는 手太陰經과 主熱하는 手少陽經을 犯하지는 못한다.

‘寒濕’은 下體로 침입하여 頭痛 惡寒이 나고, 단지 寒만 있고 無熱한 ‘單濕’은 上中 下體의 接觸部로 침입하여 無頭痛 有頭重(如冒蒙) 四肢寒하며, ‘濕兼食傷’하면 頭痛 寒熱往來 嘔吐 小便澀 大便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濕의 침입부위에 따라서 頭項[上關]이면 頭痛, 腰腹[中關]이면 腹浮 腹痛 泄瀉, 膝上臀腿下[下關]이면 小便濁 大便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참고해야 할 점은 ‘風熱’은 暴急하여 發病이 빨리 진행되니 모두 두려워 치료를 서둘러 사람이 傷하는 경우가 적으나, ‘寒濕’은 徐緩하여 발병이 느려 사람들이 輕하게 보고 대만하게 치료하여 사람이 傷하는 경우가 많다.

⑤ 燥

濕邪가 人體의 病熱로 인하여 燥로 변형되며, 기운은 陽明燥이고 性은 火에 속한다. 燥氣 症狀은 寒熱에 따라 燥熱과 燥寒이 되어 주로 二便閉結하기 때문에 진찰은 매우 어렵다. 人身의 下部에서는 ‘燥寒’이 되어 血枯하고 津竭하여 顔面은 蒼白하고 口不渴하는데 陰證에 속하여 그 치료가 어려우며, 上部에서는 ‘燥熱’이 되어 血溢하고 吐液하여 面赤 發斑 煩渴하는데 陽證에 속하여 치료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燥症은 不汗의 특징이 있어 毛焦하여 毛髮은 먼지 때가 덮인 더벅머리(墨)가 되고, 皮澀하여 피부는 無潤澤하고 피부나 頭部에 비듬이 생기므로 진단에 참조할 사항이다.

⑥ 火

인체는 水穀을 腐熟하여 精氣[영양물질]를 만들어 臟腑가 陽氣, 즉 火熱을 化生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를 ‘少火’라고 하며, 병리적으로 精血이 손상되어 臟腑의 陽氣가 偏亢될 때 火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正氣를 소모시키는 火로서 ‘壯火’라고 한다.¹⁴⁾

한편 기후의 火熱의 邪로 인하여 발생하는 實火를 ‘外火’라고 하는데 津液과 營血 손상으로 臟腑에 영향을 주고, 그 외의 다른 邪氣를 感受할 경우 반드시 熱로 化하여 火로 변화한다.

過勞 五志損傷 房勞 등으로 인하여 氣血이 失調되거나 陰虛하여 熱이 内生하는 虛火를 ‘內火’라고 하는데, 기타 甘厚味를 偏食하거나 辛香燥辣한(매운 양념류) 맛을 좋아하고 辛熱 약물과용으로도 內火가 생성된다.

1) 標・本・中氣의 개념

자연계 기후변화의 근원인 六氣가 만들어낸 기후와 物象의 기운을 本氣라고 하며, 本氣의 특징은 陰陽 부호로 표식(標識)할 수 있어 이를 標라고 한다. 本氣가 작용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까닭에 이때의 기운을 중현지기(中見之氣) 또는 中氣라고 하여 三陰三陽의 음양으로 표현한다.¹⁵⁾

六氣의 변화는 일정한 限度에 이르면 항상 반대 방향으로 轉化하려고 한다. 예로 熱은 寒으로 寒은 熱로 전화할 수 있다. 또한 六氣 자체에 盛衰와 有餘不足이 있어 熱氣가 有餘하면 熱이 되나 부족하면 寒이 된다. 少陽은 陽氣는 적으나 실체로서는 火로 발현한다. 火는 熱로써 운동이 발생하나 운동은 원래 風의 특성이므로 火風은 表裏관계로 서로 배합된다. 이것이 本氣가 中氣를 갖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陽明燥와 太陰濕은 습도(濕度; 체액)의 편차이고, 少陰熱과 太陰寒은 온도(溫度; 체온)의 편차이며, 少陽火와 厥陰風은 운동(運動; 에너지)의 편차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⁶⁾

각종 질병의 발생은 本 혹은 標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中氣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標와 本을 알면 임상에 운용하여도 위험하지 않다. 標本の 이치를 모르고는 診斷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¹⁷⁾

“의술이 얇은 의원은 우쭐거리면서 생각하나, 熱病이라고 진단한 말을 끝맺기도 전에 寒症이 다시 나타난다. 標本の 이치는 간략하면서도 넓고, 작으면서도 매우 커서 한 가지로써 百病을 알 수 있다. 標本을 알면 질병을 쉽게 치유하되 손상시키지 않고, 標에 속하는지 本에 속하는지를 관찰하면 氣를 조화시킬 수 있다.”¹⁸⁾

14) 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篇 05, 앞의 책,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

15) 黃帝內經・素問・六微旨大論 68, 앞의 책,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16) 金完熙, 新生理學總論,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992, p. 58.

17)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 74, 앞의 책, “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生於中氣者”, “知標與本用之不殆, …… 不知是者 不足以言診”, “夫標本之道 要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言標與本 易而勿損 察本與標 氣可令調”.

〈표 4-5〉 標・本・中氣表

本 氣	風	火	熱	寒	燥	濕
中氣	少陽火	厥陰風	太陽寒	少陰熱	太陰濕	陽明燥
標	厥陰	少陽	少陰	太陽	陽明	太陰

2) 標・本・中氣의 활용

標本中氣는 從化하는 규율이 있어 本을 따르는 것(從本者), 標本을 따르는 것(從標本者)과 標本을 따르지 않는 것(不從標本者)으로 구분된다.¹⁹⁾

少陽과 太陰은 本을 따르는 것으로 이들을 陰陽의 속성으로 분류하면 ‘少陽[陽; 標] 相火[陽; 本], 太陰[陰] 濕[陰]’으로 標本の 陰陽[현상과 본질]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本을 따라 少陽病은 火熱의 병증과 太陰病은 濕의 병증이 출현한다.

少陰과 太陽은 標와 本을 함께 따르는 것으로 이들의 陰陽 속성은 ‘少陰[陰] 君火[陽], 太陽[陽] 寒[陰]’으로 標本の 陰陽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標本の 病情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陽明과 厥陰은 標本の 어느 것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厥陰은 風溫의 성질을 갖고 있어 風은 火로 轉化[足厥陰 肝]하고 溫은 熱로 轉化[手厥陰 心包]하며, 陽明은 본래 가을 기운으로 寒涼의 성질을 숨기고 있어 涼은 燥로 氣化[手陽明 大腸]하고 寒은 濕으로 氣化[足陽明 胃]하기 때문에 中氣를 따라서 化生한다.

本氣와 中氣와 관련된 사항을 經脈의 구성과 임상 실례로 살펴본다. 經脈의 三陽經 중 ‘手少陽三焦經’은 少陽의 本氣인 火가 現象化하며 주관 臟腑는 三焦가 된다. ‘足少陽膽經’은 相火의 中氣인 厥陰風이 現象化하며 주관 臟腑는 膽이 된다. 즉 臟腑가 三陰三陽의 本氣를 따라 從化하는 經脈은 肝 心 脾 三焦 大腸 膀胱經이고, 실제 中氣를 따라 從化하는 經脈은 心包 腎 肺 膽 胃 小腸經이다.

한편 傷寒 陽明病에서 陽明은 그 本氣인 燥가 나타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므로 胃家實證으로 便秘[燥屎]가 있으면 承氣湯類로 치료한다. 그러나 같은 陽明病에 濕熱의 증상이 나타나는 黃疸이 오면 茵陳蒿湯을 쓰는 경우 濕은 燥의 中氣이기 때문에 출현된 것이다. 한편 經脈이 아닌 臟腑를 중심으로 할 때 濕은 胃土의 本氣이기도 한 것이다.

18)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 74, 앞의 책, p. 302.

19)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 74, 앞의 책, “氣有從本者 有從標本者 有不從標本者也”.